**웹매거진 CHINHUNG Vol. 30 오픈합니다!!**

벌써 다음주면 까치설날이 아닌 우리 설날이 옵니다. ^^

우리 진흥가족 여러분은 새해 다짐 잘 지키고 계신가요?

1월의 문을 여는 Webmagazine CHINHUNG Vol. 30이 너무 늦게 오픈되어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하셨을 줄 압니다.

담당자가 장시간 부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, 진흥가족 여러분이 좀더 편하게 웹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바꾼 부분이 많아 부득이하게 오픈일정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. 이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. (ㅡㅡ) (\_ \_) (ㅡㅡ)

이제 잠시 금번에 오픈되는 웹매거진 CHINHUNG Vol. 30호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.

새로운 2014년의 시작에 맞춰 우리 웹진도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. ^^

우선 디자인이 매거진 스타일로 변경되어 좀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편집되었습니다.

많은 코너들이 새롭게 업데이트 됨과 동시에 진흥가족 모두가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벤트 코너가 강화되었습니다.

하지만, 무엇보다 크게 바뀐 점은 비록 PC버전이나마,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에서 우리 웹진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. 기존에는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웹진을 접속해도 볼 수가 없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는데, 이번 호부터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각 코너에 대한 상세페이지를 접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자 그럼, 2014년을 여는 ‘Web-magazine CHINHUNG Vol. 30’ 여러분에게 띄웁니다.

**진흥이슈 : 이번 호 진흥뉴스!**

드디어 ‘해링턴 플레이스’ 홈페이지가 지난 1월 13일 오픈을 했습니다.

건설PG통합 브랜드라는 난제로 홈페이지 오픈이 쉽지는 않았는데…드디어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.

우리 대표브랜드 ‘해링턴 플레이스’ 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이번 진흥이슈 코너에서는 이 밖에도 지난 연말에 우리사가 수주소식이 가득하다고 하네요. ^^

**Today In Chinhung : 현장 소식 업데이트요~!!**

일반적으로 동절기는 건설사의 비수기인데…. 매월 눈에 띄게 올라가는 공정률을 보면 각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진흥인의 넘치는 에너지가 시기를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.

이번 달의 T.I.C에서는 새롭게 개설된 현장들과 오랜 공정끝에 드디어 완공된 현장들의 소식이 한가득입니다.

**진흥인이 간다 : 한코한코 정성을 모아**

12월의 마지막은 작게나마 좋은 일을 하는데, 투자해보자는 맘으로 우리 진흥가족에게 Call~??을 외쳤습니다.

생각보다 많은 분이 신청해주셔서, 정작 웹진 담당인 저는 노는 손이 되어버렸네요.

대표적인 해외아동 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올해로 7회차로 진행하는 아프리카, 아시아의 신생아들을 위한 ‘모자뜨기 캠페인’에 진흥가족 10분이 참가하셨습니다.

아프리카, 아시아 지역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털모자를 보낸다??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되는 일이겠죠.

그 이유가 뭔지, 그리고 모자뜨기란 과연 어떤 캠페인인지는 참가자중 인천본점에서 근무하시는 김자영 사원이 전하는 모자뜨기 후기를 통해 알려드립니다.

**영화와 건축 : 황제의 집 ‘자금성’ – 영화 <마지막 황제>**

베르나르도 베를톨루치 감독의 1987년 작 영화 ‘마지막 황제’를 본 것은 아마도 개봉년도에서 몇 년이 더 지난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

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, 당시에 자금성의 웅장한 규모와 화려한 색채에서 받았던 충격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

중국 마지막 왕조이자 그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영화 속에서의 ‘자금성’은 어린 황제의 집이자, 평생토록 자신의 어깨를 내리누르는 자기의 신분같은 짐의 상징이자, 추억으로 남겨야만 하는 다신 이룰 수 없는 꿈의 상징입니다.

이번 호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코너 ‘영화& 건축’ 첫번째 영화이야기는 우리에게 <거미의 계략>, <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>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거장 베르나르도 베를톨루치 감독의 ‘마지막 황제’ 입니다.

**빨간 우체통 :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말이야기**

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맞아, 말과 관련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

그 중 눈에 띄는 자료가 있어, 이번 호 빨간 우체통 코너를 통해 소개합니다.

우리나라의 많은 지명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, 유명한 인물들 또는 외형적인 모습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러다보니, 말과 관련된 지명도 드물지 않게 우리 귀에 들리곤 하지요.

지난 해 마지막 날 국토지리정보원(국토교통부 산하)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말에 관련된 지명은 총 744개라고 합니다.

말의 외향과 관련된 명칭을 시작으로 말의 진취적이고, 신성한 모습을 상징하는 명칭, 오랜 시간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어 이와 관련된 명칭까지 전국곳곳에 있는 말과 관련된 지명.

여러분이 계신 있는 곳 어딘가에도 말과 관련된 지명이 있지 않을까요??

**나도 비평가 : 자녀교육에 왕도는 없다 [부모라면 유대인처럼]**

이번 ‘나도 비평가’ 코너에 참여해주신 분은 이제 곧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실 예비아빠 황세연 대리(PG기획관리팀)입니다.

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만큼이나 한 아이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황세연 대리의 고민은 작게 나마 해결주었다는 [부모라면 유대인처럼].

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고,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**찾아라! 진흥!! : 청마를 찾아라~!!!**

Quiz! Quiz!! 코너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.

웹진 곳곳에 배치된 ‘찾아라! 진흥!!’ 코너에서 소개한 아이콘을 찾아서 응모하는 형태입니다.

2014년 첫 웹진이자 처음으로 시도되는 코너인만큼 웹진 담당이 어렵게 구한 상품을 걸었습니다.

모 커피전문점에서 소량 판매한 한정품 텀블러 2종이 상품으로 걸려있습니다. 쿠하하하하…

현재 인터넷상에서 2배 이상하는 금액으로 거래된다는 이 아이템! 웹진 담당자가 수십곳의 지점을 헤매 겨우 구했습니다. ㅠ ㅠ

커피카드를 포함한 총 14분에게 갈 상품!!! 여러분 어서어서 웹진속의 청마 아이콘 찾으셔서 응모해주세요.

이번 청마 아이콘은 총 3개가 웹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.

1개 아니죠, 2개 아닙니다. !!!! 3개의 청마 잊지 마시고, 꼭 다 찾아서 보내주시고, 여러 번 보내주셔도 응모는 한번밖에 안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~~~~!!!